

## 어린이 모험 이야기 < 개구쟁이 소년 맑음이의 어떤 하루 >

인천 원당초등학교 4학년 1반 강예준

“맑음아! 재활용 좀 버리고 와주겠니?”

일요일 아침, 엄마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의 이름은 신맑음. 이름은 ‘맑음’ 이지만 성격은 전혀 맑지 않은 남자 아이입니다.

“그럼 뭐 해 줄 건데요?” 맑음이가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주긴 뭘 해줘! 돈이라도 바랬니? 어서 버리고 와.”

“쳇……. 알겠어요…….”

맑음이는 쓰레기봉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했는데 쓰레기장은 조금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먼데…….”

맑음이는 쓰레기장까지는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궤를 하나 생각해 냅니다. 맑음이는 아파트단지 가장 구석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묻었습니다.

“여기서 잘 썩어주렴. 킬킬.”

맑음이는 쓰레기를 땅에 묻고는 가버렸습니다.

“저, 다녀왔어요.”

“벌써 왔니? 엄마가 아깐 미안했어. 자, 이거 받아.

언제나 엄마 도와주면 이득이 있는 거야.”

엄마는 오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맑음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진짜 정식으로 엄마를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게 웬 횡재인가요!

“와, 고맙습니다!”

맑음이는 오천 원을 얼른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예스, 심뵈다!”

맑음이는 오천원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 똥굴똥굴 거렸습니다.

“금 같은 오천 원이 생겼는데 이 돈으로 무얼 하지?”

맑음이는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맑음이는 인형뽑기를 하러 갔습니다.  
맑음이는 2천원을 썼지만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오, 짜증나!”

맑음이는 인형뽑기 가게를 발로 뺨 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맑음이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맑음이는 투덜거리며 인형뽑기 가게를 나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던 맑음이는 아이스크림 집을 발견했습니다.

맑음이는 남은 3천원으로 작은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뭐야, 이렇게 조그마한 게 왜 이렇게 비싸!”

맑음이는 그 조그마한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조금씩 먹으며 집 쪽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한 10m 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황토색 바람이 막 불고 있었습니다.

맑음이는 호기심이 생겨 이끌리듯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맑음이의 입과 코 속으로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콜록콜록, 뭐지 이걸?”

근처엔 구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각한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맑음이도 기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맑음이는 아무나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다 뭐예요? 콜록콜록”

“오늘 새벽에 갑작스럽게 온 모래바람이야. 이건 천천히 남쪽으로 가고 있어. 콜록콜록”

“아, 그렇군요, 콜록콜록. 잠깐만, 네? 남쪽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남쪽은 맑음이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려야 해요!”

맑음이는 남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아, 꼬마야!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했는데 남쪽으로 점점 가면서 모래바람이 더 세진다고 하더라. 그린빌라 쪽으로 가면 이거보단 10배는 셀 거야.”

그린빌라는 맑음이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안 돼! 피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집 안에 있어야겠지. 그런데 무너지는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난 밖으로 나왔단다. 저기 죽은 사람들 보이지?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 조각에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야.”

맑음이는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맑음이는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넘게 달렸지만 집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이대론 불가능해!’

맑음이는 생각했습니다.

맑음이는 근처에 모래바람에 쌓여있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걸려라!”

시동이 걸렸습니다. 맑음이는 집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달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시간을 더 달려야 도착하겠는걸…….’

맑음이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맑음이는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저기요! 근처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은 점점 세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야겠어…….”

맑음이는 세지고 있는 모래바람 속의 자동차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맑음이가 일어나자 근처에는 쓰러진 가로등과 조금이라도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앗, 모래바람이 먼저 가버렸어!”

맑음이는 엑셀을 꾸욱 밟았습니다.

30분 정도 가자 멀리서 더 거세진 모래바람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일 거야.”

맑음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형 뽑기 가게, 고급 아이스크림 집……. 맑음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뭐야…….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모래바람에 날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맑음이의 집 근처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맑음이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겨우 도착해 맑음이는 문을 열고 내렸지만 집으로 뛰어가기엔커녕  
걸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거센 모래바람 때문이었지요.  
맑음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죽은 사람들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맑음이가 어디있냐’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 엄마, 아빠!”

“어? 맑음아!”

서로 만나긴 했지만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맑음이와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뒤를 조심하세요!”

건물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것을 보고 얼른 맑음이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거센 모래바람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건물에 깔렸습니다. 맑음이도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 살인자인 모래바람을 멈추겠어요. 두고 보세요.’

맑음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차 문을 열고 댔습니다.

시내로 가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맑음이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려지기는 했지만 거센 모래바람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시내로 나왔습니다. 시내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로등을 잡고 있다가 가로등이 부서져 날아가는 시민, 손톱으로 벽을 잡고

견디자 손톱이 빠지는 시민, 유리창이 깨져 온몸에 상처를 입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맑음이는 그런 시민들을 보며 엄마,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시민들은 맑음이가 몰고 온 차를 보며 유리창을 두드리며 태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맑음이는 그들을 기꺼이 태웠습니다.

좁게 타서 20명이 댔습니다. 그러자 나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밖에는 태워달라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맑음이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맑음이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래바람을 멈출 수 있을까?’

맑음이는 처음에는 ‘초대형 진공청소기로 모래를 빨아드릴까’ 하고 생각했지  
만 맑음이도 그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 안 됩니다. 아니, 웬지 될 지도 모릅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나라 당 20개 씩 놓는 것입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의 크기는 65m, 12톤).  
그런데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맑음이는 공기청정기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기청정기를 부셔서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다.  
맑음이는 전국 곳곳의 공기청정기회사를 다 방문했습니다.  
맑음이는 초대형 공기청정기 셀 수 없을 만큼 만들었고, 모든 지역,  
모든 섬에 20개 씩 놓았습니다 (비행기에 타서 뿌렸기 때문에 정확히 20개는  
아님). 맑음이는 무전기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파이브, 포, 트리, 투, 원. 공기청정기 틀어.”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틀자 이 모래바람은 모든 초대형 공기청정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공이다. 성공이야!”  
맑음이 덕분에 대한민국 인구 2분의 1이 생존했습니다.

얼마 후, 맑음이는 인터뷰에 참석했습니다.  
“신맑음 씨, 신맑음 씨 덕분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저 때문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도로 했지 저의 힘으로 모래바람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공기청정기 덕분에 모래바람이 멈춰졌습니다.”

“음냐음냐…… 제가 그런 건 아니구요…… 음냐음냐……  
공기청정기 덕분에…… 음냐음냐…….”  
“맑음아, 일어나야지!”  
“아함! 어? 으응?”  
“빨리 씻고 밥 먹어. 학교 늦겠다.”  
“뭐, 뭐라고?”  
“못 들었어? 학교 늦겠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 엄마!”  
맑음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 애가 왜 이런담. 잠이 덜 깬나? 진음아, 맑음이 좀 떼어줘라.”

“네, 엄마.” 맑음이의 형, 신진음은 맑음을 떼어냈습니다.

“지각했네. 지금 8시 30분인데. 킁킁.”

“안 돼, 늦었다!”

맑음이는 그 꿈을 끈 이후로 맑음 답게 행동했습니다.

맑음이는 매일 하늘을 보며 저 파란 하늘이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휴……. 이미 늦은 거, 그냥 늦지 뭐.”

맑음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

나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차 안에 20명이 좁게 탔던 곳인데 그때 빠졌던 나사 같습니다.

“꿈이었을까? 사실이었을까?”